

## 전기계 및 회원사 동정

### 산업부 윤상직 장관, 원전시설 현장 점검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달 10일 경주지역 원전 관련 시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3주기와 해빙기 재난안전 대책 기간을 맞아 주요시설인 원전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윤 장관은 먼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현장을 찾아 오는 6월 준공을 앞둔 막바지 공사현황을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안전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격려했다. 신월성 2호기에서는 원자로 건물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본 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한전, 스마트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 개발

한전이 스마트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달 19일 한전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 스마트그리드 전문가, 개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전 광주전남본부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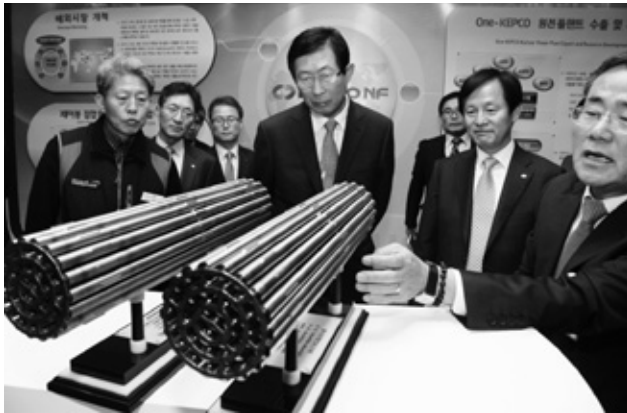
이번에 개발된 스마트그리드 종합운영시스템(Smart Grid Integration Operation System)은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해 송변전, 배전, 영업 등 기존 14종의 업무영역별 운영시스템의 정보를 종합해 문제해결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전압, 역률, 고장 등 계통운영 정보와 사용량 △수요관리, 정전 민감 여부 등의 고객정보 △빌딩이나 공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전기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분산자원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분석·분류 또는 예측해 전력계통 운영에 있어 최적의 방법을 제시해 준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지난달 13일 한전원자력연료(주)를 방문, 주요 국정과제인 공기업 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방만경영 해소 등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조환익 사장은 “금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혁신의 기회로 삼고, 끌려가는 혁신이 아닌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혁신을 이루는 발전의 계기로 삼아 경영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조 사장은 경수로 핵연료 제조공장 현장을 방문해 “중장기 전력수급계획 및 해외원전 수출에 따른 핵연료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제 3공장의 적기 준공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조 사장은 “한전원자력연료가 ‘Global Top 3 Fuel Cycle Company’로 성장하기 위해 Hiper 16, Hiper 17 개발 등 기술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한국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가사도가 에너지 자립 섬으로 거듭난다. 한전은 지난달 13일 전라남도청, 진도군청, 전남테크노파크 등 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진도군 가사도에서 ‘가사도 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한전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국내 최초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적용해 가사도를 에너지 자립 섬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번 마이크로그리드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은 섬 전체에 걸쳐 풍력발전 400kW, 태양광발전 320kW, 배터리 3MWh의 설비를 설치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EMS를 활용해 섬 전체의 전력에너지를 최적화 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한전 김병숙 신성장동력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디젤발전소의 연료비용 절감,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마이크로그리드는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와 ICT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

한전 조환익 사장,  
“공기업 정상화 통해 혁신·  
성과창출” 강조

한전, 마이크로그리드  
활용 에너지 자립 섬  
구축사업 추진

한전, 전력산업  
신성장동력 포럼·기술전 개최

낸 신성장동력으로서 창조경제 시대의 에너지산업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가사도와 같이 육지계통과 분리된 국내 120여 개 도서지역에 독립형 마이크로그리드의 확대보급을 통해 연간 약 160억 원의 전력공급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조환익 사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및 10개 전력그룹사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전력산업 관계자 300여명을 초청해 ‘2014년도 전력산업 신성장동력 포럼 및 기술전’을 대전에 위치한 전력연구원에서 개최했다.

행사 첫째 날인 27일에는 개막행사와 함께 ‘전력산업 신성장동력 포럼’을 통해 전력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정부 및 산·학·연 각 계의 전력분야 전문가들과 참석자들 간의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우수 협력기술을 포함한 40건의 우수 연구성과물을 전시한 ‘전력기술 성과전시관’도 운영해 전력사와 협력회사간 상생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한전KPS, 인도 바브나가르  
500MW 화력발전소 O&M  
사업 수주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인도 구자라트 주정부 산하공기업 BECL(Bhavnagar Energy Company Ltd.)사의 바브나가르 500MW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전 및 정비(O&M) 사업을 수주했다. 한전KPS 최외근 사장은 지난달 18일 인도 현지에서 BECL사 수디르 만카드 회장을 만나 총 공사금액 약 1,900억 원 규모의 O&M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됨에 따라 한전KPS는 앞으로 15년 동안 설비용량 500MW (250MW×2기)의 바브나가르 화력발전소에 대한 운전 및 고품질 책임정비를 제공하게 됐다.

한전KPS는 “ATPS 화력발전소(125MW×2기) O&M 사업에 이은 인도 주정부 산하기관 발주 발전사업 수주로 글로벌 운전 및 정비 선도회사로서 인도 내 한전KPS의 위상을 확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적인 사업 확대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전5사·전력거래소,

상임이사 선임

발전5사 상임이사의 선임이 완료됐다. 전력거래소도 계통본부장을 선임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전5사에 신임 본부장 임명을 통보함에 따라 발전5사는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열고 신임 본부장을 선임했다.

우선 한국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에는 홍성의 한전 영업처장, 기술본부장에는 정석부 발전처장이 각각 선임됐다. 중부발전 관리본부장에는 이정릉 기획조정처장이 승진했다.

한국서부발전의 경우 정영철 자재처장이 관리본부장에, 김동섭 前발전처장(관리역)이 기술본부장에 선임됐다. 한국남부발전은 이종식 경영전략처장이 관리본부장으로, 김태우 신성장사업실장이 기술본부장으로 선임했다.

한국동서발전의 경우 전략경영본부장에는 박현철 미래사업단장을, 기술안전본부장에 이석구 동해화력발전처장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전력거래소는 신임 계통본부장에 조종만 중앙전력관제센터장을 지난달 24일부로 선임했다.



홍성의  
남동발전 기획관리본부장



정석부  
남동발전 기술본부장



이정릉  
중부발전 관리본부장



정영철  
서부발전 관리본부장



김동섭  
서부발전 기술본부장



이종식  
남부발전 관리본부장



김태우  
남부발전 기술본부장



박현철  
동서발전 전략경영본부장



이석구  
동서발전 기술안전본부장



조종만  
전력거래소 계통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이전을 위한 본사 사옥을 착공하면서 본격적인 경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015년 말 한수원 경주 본사가 완공되면 이전이 결정된 지 9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조 석)은 지난달 10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정수성 국회의원, 정석호 경주시의회회장을 비롯해 지역인사와 시민 1,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사옥 건립을 위한 기공식 행사를 가졌다.

한수원 조 석 사장은 “신라 천년의 찬란했던 역사와 문화가 깃들고 토함산의 푸른 정기가 흐르는 장항리가 국가 에너지 산업의 기둥이 될 한수원의 새 시대를

한수원, 경주 본사 사옥

본격 착공

여는 터전이 될 것”이라며 “한수원은 경주의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치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 하에 경주시와 한수원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수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전운영으로 국민의 신뢰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동발전, 삼성동 시대 마감  
... 진주 시대 개막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인해 한전에서 분사, 삼성동에서 13년간 근무했던 한국남동발전(사장 허엽)이 진주에 새동지를 틀고 전력그룹사 최초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알렸다.

남동발전은 최근 지방 본사 사옥을 준공하고 지난달 14일 기획처, 관리처, 신성장동력실 등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고 24일부터 정상 근무에 들어갔다. 남동발전은 2본부2실4처 7사업소의 조직으로 290명이 진주혁신도시로 이전, 지난달 27일 진주 이전 기념식을 개최했다.



한국중부발전(사장 최평락)은 지난달 15일 태국 파툼타니주 나바나콘 산업단지에서 국내 발전사업자 중 최초로 태국 가스복합 발전시장 진출사업인 나바나콘 가스복합발전소의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나바나콘 가스복합발전 사업은 총 사업비 2,181억 원, 설비용량 110MW 규모로, 중부발전, 태국 나바나콘전력 및 엔지니어링사인 도요타이가 사업파트너로 참여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에 2012년 166억 원의 자금을 투자해 지분 29%를 보유하고 있다.

중부발전 최평락 사장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탕으로 태국 후속 민자발전사업 추가 수주, 운영 정비 사업 등에 진출할 방침”이라며 “더 나아가 베트남 반풍 석탄화력발전소(1,320MW) 운영사업 등을 통해 인도차이나반도 전체 전력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력정보 보안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가 지난달 1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감사협의회를 개최한 한전KDN 김무일 상임감사는 “전력 및 에너지분야 사이버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사이버안전센터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정보보안 이슈와 문제점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전력그룹사가 타 공공기관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이날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는 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한수원, 한전KDN,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산업개발 등 총 1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 중부발전, 태국 나바나콘 가스복합발전소 종합 준공

## 전력그룹사 감사협의회 개최 ... ‘사이버 보안 강화’ 다짐

한전원자력연료, 핵연료  
노내연소 성능검사 장비·  
기술 中 수출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아 국내 기술진에 의해 개발된 핵연료 노내연소 성능검사 장비와 기술이 중국 원자력발전소에 수출되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핵연료 설계와 제조를 수행하는 한전원자력연료(사장 이재희)는 국제경쟁입찰을 거쳐 중국핵동력연구원(NPIC, Nuclear Power Institute of China)에 수출한 핵연료 검사장비가 최종 성능 점검을 마치고 지난달 초부터 중국 진산원전에서 사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연료 노내연소 성능검사 기술은 원자로에서 연소 중인 연료가 설계 예측치대로 안전하게 기계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검사기술이다.

한전원자력연료 이재희 사장은 “UAE원전용 핵연료 완제품 수출, 핵연료 핵심부품 수출에 이어 자체 개발한 핵연료 성능검사 장비와 기술을 수출 사업화 했다는데 자부심을 느끼며, 최근 중국을 비롯한 몇 개국에서 핵연료 성능 검사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만큼 향후 해외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밝혔다.



한전기술, 원전 설계안전  
증진 재다짐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3주기를 맞아 원전 설계안전 증진 결의 대회를 지난달 11일 본사 대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후쿠시마 원전 3주기를 맞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전한 원전을 설계하기 위해 안전설계 실태점검과 전 직원 다짐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한전기술 박구원 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안전을 등한시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원전산업 종사자 모두가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사태를 역사의



거울로 삼아 재앙과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문화 정착을 다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자력 안전 중심성 업무수행과 청렴 윤리 준수를 다짐하는 직원들의 선서문 결의가 있었으며, 산업부 윤상직 장관이 산하 원전 공기업에 전달한 ‘안전한 원전 운영과 윤리의식 준수’ 메시지도 공유됐다.

한편,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의 대국민 신뢰도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한 순환보직 및 외부 전문가 영입, 기기검증 관련 입회지도 등 다각도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전기연구원(원장 김호용)이 국내 최초의 단락발전기(4,000MVA) 재권선(再捲線) 공사를 성공리에 마치고, 본격적인 시험인증 서비스를 재개한다.

전기연구원(이하 ‘KERI’)은 지난달 12일 김호용 원장 및 임직원, 두산중공업, 한국플랜테크 등 공사 관련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락발전기 재권선 공사 준공 및 안전운전 기원 기념식을 가졌다.

KERI가 보유한 시험인증 핵심 설비인 4,000MVA급 단락발전기는 전력기기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국내유일의 시설로 1982년에 준공됐다.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초과해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KERI는 노후 정비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9월부터 대대적인 정비와 재권선 공사에 들어간 바 있다.

재권선 공사는 국내 기술축적을 도모하는 한편, 공사비용 및 유지보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국내 기업인 두산중공업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단락발전기의 재권선 공사는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되는 작업이다. 많은 난관이 발생했지만, 발전기에 대한 도면작업 및 분석 등을 통해 기존의 설비와 등가 이상의 품질목표를 달성했고, 이번에 성공리에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KERI는 지난달 17일부터 단락시험을 본격 재개했다. 



전기연구원, 단락발전기

재권선 공사 마무리...

시험인증 서비스 재개